

## 호세 환 파블라다의 산문에 나타난 동양사상에서의 접근과 그 한계

강태진(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과)\*

- I. 서론
- II. 동양사상 접근동인
  - II.1. 외부적 요인
  - II.2. 개인적 요인
- III. 동양사상 접근과정
  - III.1. 물질적 요소
  - III.2. 정신적 요소
- IV. 불교와의 관계
  - IV.1. 불교 교리
  - IV.2. 불교 수행
- V. 동양사상 접근의 한계
- VI. 결론

### I. 서론

마리아 에스테르 마시엘(María Esther Maciel)은 한 대답에서, 다른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중남미 문학은 20세기 초반에 해체문학 운동의 도래와 함께 동서양에서 출원한 무수한 전통을 포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2002, 83). 이러한 경향아래 중남미는 아르헨티나와

\* Tae-Jin Kang(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epartment of Spanish, tj kang@cu.ac.kr), “El pensamiento oriental en las prosas de José Juan Tablada”.

멕시코를 중심으로 동양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닌 작가들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와 훌리오 꼬르타사르(Julio Cortázar)가 등장하고, 멕시코에서는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와 아마도 네르보(Amado Nervo), 호세 환 따블라다(José Juan Tablada), 그리고 옥파비오 빠스(Octavio paz)와 같은 대표적인 작가들이 탄생한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문학 활동에 영향을 끼친 멕시코 작가 중에서 호세 환 따블라다는 일본에 대한 호기심이 무척 강하여 일본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1900년에 일본을 여행한 멕시코 최초의 작가가 된다.

일본의 하이쿠 형식의 시를 중남미에 처음으로 소개하여 일본풍 시인으로 알려진 호세 환 따블라다는 어렸을 때부터 동양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들에게 주로 시인으로 인지되어 있어 대부분의 연구는 시 부분에 한정되고 있다. 엑토르 라미레스 고메스(Héctor Ramírez Gómez 2004)는 『호세 환 따블라다의 시에 나타난 동양의 영향 *Influencia de Oriente en la poesía de José Juan Tablada*』이라는 논문에서 동양시학과 동양철학을 언급한 후에 일본의 하이쿠를 소개하며 따블라다의 시를 하이쿠식으로 분석한다. 민용태 교수(1995, 171-189)는 따블라다를 오늘날의 중남미 시를 동양 영향 일색으로 몰들인 장본인으로 정의하고 따블라다의 하이쿠 형식의 시와 그림시·시각시·표의문자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출신의 아수코 타나베(Atsuko Tanabe 1981)는 『호세 환 따블라다의 일본취향 *El japonismo de José Juan Tablada*』이라는 저서에서 멕시코 시인의 일본성향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시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 따블라다는 당시의 잡지에 많은 기사를 투고하여 산문작가로도 성공을 거둔 문학가이다. 그가 남긴 산문 중에는 『추억 *Memorias*』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되었던 두 권의 책인 『인생살이 *La Feria de la vida*』와 『기다란 그림자 *Las sombras largas*』가 있다. 1937년에 출간된 전자는 <엘 유니베르살 *El Universal*>에 1925년 1월에서 1926년 2월까지 게재되었던 기사들의 모음집이고, 후자는 1926년 3월에서 1928년 6월 사이에 동일한 신문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모아

1993년에 출판된 산문집이다. 두 권의 책은 호세 따블라다의 『일기 *Diario*』에 기초하고 있어 일부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공꾸르(Edmond y Jules Goncourt) 형제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일기』는 1900년 5월 7일에서 1944년 8월 19일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1906년과 1912년, 1914년과 1920년 기간 사이의 내용은 빠져 있다(Tablada 2007, 32). 이 작품들을 일독하면 우리는 책 속에 동양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작품에서 따블라다(1993)는 아주 오래된 문명을 암시하는 극동의 예술과 종교를 매우 숭고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일기』를 비롯하여 『추억』과 관련된 두 권의 책을 근간으로 호세 따블라다의 동양 취향을 연구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양과 관련된 호세 환 따블라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에 국한되어 있어 산문에 나타난 동양 취향을 분석한 글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산문에 나타난 멕시코 작가의 동양사상 접근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작가의 동양사상 접근 동인을 외부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작가가 동양사상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을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로 이분하여 따블라다가 탐닉했던 동양의 예술품과 정신 및 종교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동양사상 접근에 대한 한계를 분석하며 작가의 동양 지향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 II. 동양사상 접근 동인

### II.1. 외부적 요인

호세 환 따블라다의 동양사상 접근에 대한 외부적 요인을 관찰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사회적 상황과 문학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작가의 일기와 관련하여 조명하면,

전자는 중남미 독립시기의 분위기와 뽀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 시대의 멕시코 사회, ‘청년 아테네(Ateneo de la Juventud)’<sup>1)</sup>, 그리고 동양정신에 관심을 표방했던 인물과 연결되고, 후자는 모데르니즘(Modernismo)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멕시코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항상 지니고 있었던 따블라다는 아스페까인들의 물건을 수집하고 멕시코 예술을 소개하기<sup>2)</sup>를 좋아했다. 또한 그는 뉴욕에서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위해 1921년에 ‘라틴인들의 서점(Librería de los Latinos)’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작가의 경력은 외국에서 생활하지만 항상 라틴아메리카와 멕시코 상황에 대해 관심을 떨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따블라다(1991, 136)는 자신의 문학인생의 성격을 비전(秘傳)적인 요소와 통속적인 요소로 이분하여, 전자는 지식과 문화의 태반으로 그리고 후자는 독서의 토양으로 삼아 자신의 양성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 아래에서 작가는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점으로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가 1829년 키토(Quito)에서 쓴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에 대한 시선Una mirada sobre la América Española」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아메리카 대륙과 중남미인 그리고 국가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조약은 종이쪽지에 불과하고 헌법은 단지 책이며, 전투적인 선거는 부정 부적인 자유이고 고통속의 인생일 뿐이다(Tablada 1992, 147).

이 단락을 자기 일기에 삽입한 이유는 발전된 미국에 비해 여러 면에서 낙후된 중남미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멕시코 문제로 곧바로 연결된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뽀르피리오 디아스는 오귀스트 콩뜨(Auguste Conte)의 실증주의(Positivismo)의 영향으로 ‘질서와 과학’을 중요시하여 형

1) ‘청년 아테네’는 1909년에 창립되었고 1912년에 ‘멕시코 아테네(Ateneo de México)’로 개명하였다.

2) *Nueva Enciclopedia Larousse* 9(1984), 9452. 따블라다는 *Mexican Art and Life*라는 잡지를 출판하였다.

이상학과 종교를 억압했다. 특히 다윈주의가 등장하여 인간은 유전에 의한 우연한 산물일 뿐이라는 사상이 지배하면서 신은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를 상실하였다. 이리하여 일부 사상가들은 현실세계를 관찰하고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자아의 완전한 해방을 추구하였다. 또한 모순적이고 혼란스런 수많은 철학연구의 결과, 사람들은 퇴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급기야 지식인들은 문학이나 철학 작품에 옛날 신화의 다신론, 산스크리트어의 대서사시, 동양의 종교 이야기, 불교교리 등을 소개하며 새로운 신을 찾으려 했다(Tanabe 1981, 8-9). 1910년 디아스 정권 이후에는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탄생하여 무정부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도 있었다(Guevara 2000, 223-237). 당시의 상황에 대해 따블라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자유사상가가 되는 것이 유행한 시기가 있었다. 그는 불경스런 무신론자처럼 강인하였다. 그것은 총을 가진 것처럼 힘과 우월성을 뜻하는 하나의 기호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성당에 출입하는 것조차도 거부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수치스러울 정도로 일탈해 있었다. 인간이 동물을 앞선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리하여 정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행위들을 지우는 것이었다(Tablada 1991, 16).

이런 상황에서 따블라다는 자신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멕시코인들과의 관계에서 답을 구하고자 시도한다. 『일기』에서 따블라다가 언급하는 인물은 정치가를 비롯하여 외교관, 작가, 화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중에서 작가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나며 서신교환을 하여 공통점을 시사하는 인물들은 호세 바스콘셀로스(Alfonso Reyes), 안토니오 까소(Antonio Caso) 등이다. 이들은 1909년 10월에 탄생한 ‘청년 아테네’의 중심인물로 뽀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의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에 반대했던 지식인들이다.

이들 중의 일부는 그리스도 개념의 신을 상실하여 동양에서 신을 찾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따블라다와 친분을 유지했던 예수스 발렌수엘라(Jesús Valenzuela)는 *Revista Moderna*에서 인도 선지자들의 열반이나 완전한 공(空) 외에는 어떠한 무기도 이 무시무시한 공포

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Tanabe 1981, 9)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따블라다는 『일기』와 『추억』에서 ‘주술사(Nigromante)’라는 별명을 지녔던 이그나시오 라미레스(Ignacio Ramírez)와 멕시코 대통령을 역임했던 마데로(Madero)를 언급하며 아마도 네르보와 호세 바스콘셀로스와의 관계를 서술해 놓고 있다. 이들은 가톨릭 종교를 국교를 하고 있던 멕시코 분위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동양 취향의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이다. 먼저 이그나시오 라미레스는(1994, xix) 삶의 법칙은 자연에 있고 인간들은 신의 본질을 모르며 물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변한다며 신을 부정했던 사람이다. 따블라다는 단지 명성으로 ‘주술사’를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라미레스는 이미 동양 신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혼자서 불교를 수행한 마데로에 대해 따블라다는(1993, 397) 그의 수양을 알고 있는 듯, 죽은 후에 그가 “선택하기 어려운 정신적 우월성의 심연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시와 산문에서 불교적 요소를 많이 남긴 아마도 네르보와의 관계는 자주 언급되어 있어 함께 점심식사를 나눴다(1992, 53)는 내용도 서술되어 있다. 그리스와 인도에서 멕시코의 신선한 모델을 찾고자 했던 ‘멕시코 아테네’ 구성원 중에서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인도연구 *Estudios Indostánicos*』를 저술한 대표적인 불교 연구자였다. 그는 대중들에게 명상과 인도의 호흡법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단편소설집인 『마술적 소나타 *Sonata mágica*』에서는 불교의 요소들을 삽입하기도 했다(강태진 2002, 29-35). 따블라다는(1992, 158-159) 호세 바스콘셀로스와 친분을 유지하며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인도연구』를 직접 읽고 이 책에 대한 소감을 적어 보내고 그 답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답장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유감이다. 그 외에 따블라다는 바스콘셀로스와 점심을 함께 하며 인도의 신비주의 등을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호세 환 따블라다의 동양사상 접근에 대한 외부적 요인 중에서 사회적 요인인 서구사회에 비해 물질적으로 낙후된 중남미와 뿌르피리오 디아스 시대의 과학 중심 정책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 이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청년 아테네’, 그리고 동양정신에

경도되었던 이 단체의 인물로 둘러싸여 있었던 따블라다를 살펴보았다.

극동에 관심을 표방하는 이국주의를 하나의 특성으로 내세우는 모데르니스모는 멕시코에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풍미했던 벨르피리오 디아스 정권의 프랑스 지향 예술정책에 힘입어 ‘아름다운 시대(*la belle époque*)’에 나타난다. 이 사조의 연대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있으나 멕시코에서의 모데르니스모는 1896년과 1905년 사이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에 발표된 *Revista Moderna*는 모데르니스모의 새롭고 당당한 대변인 역할을 한다. 이 잡지를 중심으로 모였던 멕시코 모데르니스모 시인들 중에는 아마도 네르보와 호세 환 따블라다가 있다(Tanabe 1981, 23). 멕시코에서의 동양 자양분을 흡수한 따블라다는 카라카스와 보고타, 아바나 등의 신문에 연재를 하며(Larousse 1984, 9452) 중남미의 다른 작가들의 성향도 놓치지 않는다. 당시의 중남미 시인들을 살펴보면, 모데르니스모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훌리안 델 까살(Julián del Casal)이 『가케모노 Kakemono』라는 시를 통해 중남미 문학에 일본 관련 주제를 가장 먼저 소개했다. 또한 모데르니스모의 완성자인 루벤 다리오(Rubén Darío)는 칠레에서 1886년 당시 대통령 아들이었던 페드로 발마세다 토로(Pedro Balmaceda Toro)라는 시인을 알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대통령궁에 일본 예술품을 전시해둔 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극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 외에 루벤 다리오는 일본 전권대사였던 알프레도 이라라사발(Alfredo Irazabal)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로부터 동양 예술 분위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Tanabe 1981, 24-25). 극동을 중심으로 한 시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은 ‘단지 화려함(*por lujo, y nada más*)’을 위한 하나의 유행이었다(Tanabe 1981, 24)고 지적하지만, 이러한 문학적 배경아래에서 호세 환 따블라다는 자연스럽게 동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작가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학적 성향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동양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 II.2. 개인적 요인

“나 자신만 믿는다(Sólo creo en un ismo: el YOmISMO!).”라고 말장난을 하며 개인숭배를 주장하는 따블라다는 자신을 ‘영혼의 반란자(yo soy revolucionario de espíritu)’라고 일컬을 정도로 정신과 관련된 사항을 많이 서술해 놓고 있다. 작가의 정신에 대한 관심은 당시에 멕시코에 유행했던 신지학과 연결된다. 따블라다의 정신에 대한 애정은 『인생살이』와 『일기』, 『기다란 그림자』에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작가가 밝힌 정신의 우월성, 나이에 따른 자신의 정신에 대한 관심, 수양방법 및 영향권, 그리고 『인생살이』를 서술하고 일본을 방문한 이유 등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작가가 지적하는 정신의 우월성은 정신이 지식과 물질, 신체 등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난다. 작가는 정신이 최고의 카테고리에, 그리고 지식은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다(1993, 23)고 지적하고 있다. 이리하여 결국 작가는 “중국에 가서는 정신이 최고다. 바보들은 대단하다고 떠벌린 원인들의 단순한 결과에 불과한 기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믿는다.”(1993, 235)며 정신을 강조한다. 이처럼 우월한 정신의 성숙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따블라다는 젊음의 열정을 설정한다(1991, 234).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작가는 무정부주의자들을 꾸짖는다. 1921년부터 편지에 심리학을 언급하기 시작(1992, 6)한 그는 1923년에 쓴 일기에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을 비난한다.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 강인한 사람인 무정부주의자들은 정직하거나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 로돌포 레온은 프랑스 소설가들을 들먹이며 그들을 믿으라고 했다. 오늘날 나는 “프랑스 문학과 강인한 사람들의 야단스러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묻고 싶다(1992, 230).

정신의 우월성을 감지한 경험이 있는 작가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소개한다. 어린 시절 어느 날, 거대한 산 끄리스토팔 성당에 들어갔



을 때 지진이 일어나 따블라다는 초인간적인 천상의 목소리를 듣고 신적인 사랑으로 흔들리던 땅바닥이 하늘로 올라감을 느끼는 기적 같은 신비를 체험한다(1991, 60). 이 사건 이후 따블라다는 정신에 대한 관심으로 군인학교 재학시절에 플라마리온(Flamarion)의 『루멘과 무한정의 서술 *Lumen y Narración del infinito*』을 읽으면서 영적 요소의 법칙을 터득한다(1991, 89). 이 법칙에 따라 작가는 정신 연마를 위한 시간의 흐름을 강조한다. 한 예로 작가는 젊은 시절과 노년시대를 비교하며 전자보다 후자를 선호한다.

나는 그 동안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해 왔을까? 나이가 든 이후에도 젊었을 때의 나와 똑같은가? 나는 그럴까봐 두렵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오래전부터 많은 자비를 베풀어 왔다(1992, 231).

이러한 내용처럼 작가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감정의 허상을 깨닫고 잠재적인 정신력을 연마하여 초인간을 향한 높은 경지의 세계로 나아간다.”(1991, 14)고 역설한다. 이리하여 따블라다에게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의 축복으로 다가간다. 그는 50세가 넘어 『인생살이』를 발표할 때 자신의 정신력이 대단한 경지에 있었다고 자랑한다(1991, 13). 실제로 그는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말년에는 선행을 베풀고 감정을 조절하고 명상을 하며 일상적인 물질주의와 거리를 두었다(1992, 6).

정신세계에 대한 수양 방법을 이야기 하며 작가는 독서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자연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희열과 차분함을 느낀(1992, 122-123) 따블라다는 독서의 장점을 지식 배양과 정신세계 고양이라고 한정하며 독서에서 황홀감을 얻는다고 고백한다. 이리하여 작가는 책을 통해 처음에는 지식을, 두 번째에는 상상력을 얻지만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정신력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93, 361). 이런 과정을 체험한 작가는 종교서적을 전문으로 한 ‘아바디아노 고서점(*La Antigua Librería de Abadiano*)’을 자주 왕래하였다(1991, 175). 따블라다는 『인생살이』에서 자신이 읽은 책들을 소개한다. 실제 세계가 정신세계라고 역설한

바실 킹(Basil King)의 『죽음의 붕괴*La abolición de la muerte*』,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 화이트레이(W. Whiteley)의 『불멸성의 메카니즘*El mecanismo de la inmortalidad*』, 정신의 점진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는 카메론(M. Camerón)의 『일곱 가지 명제*Los siete propósitos*』, 범아일체를 강조한 브래들리(H. Bradley)의 『별을 향하여*Hacia las estrellas*』, 영혼불멸성을 주장하는 셔브레이어(L. Chevreuil)의 『인간불멸*On ne meurt pas*』등이 그것이다(1991, 15-16). 그 외에 그는 베르그송, 삐에르 로띠(Pierre Loti) 등을 비롯한 프랑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다(1993, 48).

정신세계에 경도되어 있던 따블라다는 지적으로 성숙한 단계(1993, 362)에서 “성인의 죄악을 보지 말고 범법자의 미덕을 보라(Ver la virtud del Pecado y no el pecado del Santo).”는 신지학의 가르침에 빠져 든다(1993, 191). 이리하여 그는 신지학 전문서점을 넘나들며 신지학 서적에 관심을 보여 리드비터(C. Leadbeater)의 『신지학 스케치*Texto de Teosofia y Bosquejo Teosófico*』(1992, 217)와 『사물의 이면*Occult Side of Things*』(1992, 265), 『신지학 재고*Occult Review y Theosophy*』(1992, 283) 등을 언급한다. 그는 이 책들을 취침 전에 침대에서 달빛 효과를 내는 촛불 아래에서 읽었다(1992, 243)고 한다.

따블라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토론(1992, 211)하곤 하던 신지학은 심령학보다 더 정교한 것으로 카르텍(Kardec)의 윤회설을 계승한다. 신지학은 윤회를 거쳐 마하트마(부처, 그리스도, 크리쉬나)의 성격을 얻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며, 신지학의 비전적인 성격은 세상을 지배하는 마하트마의 존재를 저변에 깔고 시작(Boero 1983, 284)하여 정신의 세계를 동양으로 향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신지학을 바탕으로 따블라다는 1936년 여름에 정신공부를 더 강화하기 위해 뉴욕에서 멕시코로 이사를 할 정도로 정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2007, 23)고 로돌포 마따(Rodolfo Mata)는 밝힌다.

정신공부에 비중을 두고 젊은 시절의 격동기보다는 사후의 정신적 진전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지녔던(1991, 147) 따블라다는 『인생살

이』를 서술하고 일본을 방문한 이유를 정신활동에 두고 있었다. 따블라다는 서문에서 국가적 혼란과 과탄에 빠진 개인들이 인생 말년에 허망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정신과 정신의 불멸성, 그리고 정신의 진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밝히며, 이 바탕 위에서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1991, 16). 또한 작가는 일본을 방문하게 된 계기를 왕성한 정신활동을 하는 시기에 힘차고 그림 같은 성격의 아이디어를 지닌 문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예들은 작가가 자신의 동양 지향 정신공부의 이유를 밝히면서 국가의 안정과 자신의 발전과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따블라다는 정신에 커다란 관심이 있어 정신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접하였고 물질보다는 정신을 우월하게 보았다. 이리하여 그는 정신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작가는 동양에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정신세계에 천착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동양과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Ⅲ. 동양사상 접근 과정

#### Ⅲ.1. 물질적 요소

##### Ⅲ.1.1. 동양물품 수집 동기

서양 예술의 특성을 떠들썩하고 다혈질이라고 평가한다면 동양 예술은 순수하고 성스러운 맑은 물이라고 정의한(1992, 23) 따블라다는 “차를 처음 맛본 이후에 극동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일본에 가게 되었다.”(1991, 210)고 말한다. 이러한 동양에 대한 동경으로 따블라다는 동양의 많은 물건들을 수집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뉴욕으로 떠난 후에 모두 분실하게 되는 이 물건들을 모으게 되는 계기와, 따블라다가 수집한 동양의 예술품들을 소개하면서 멕시코 작가의 동양 취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따블라다가 동양 물품을 수집하는 동기를 보면, 집안 요소와 주변 지인들의 영향, 그리고 개인적 성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계도를 보면 동양과의 관계가 여러 경로로 나타난다. 첫째는 따블라다의 이모부가 마사틀란(Mazatlán)의 조선소에서 근무하며 필리핀에서 온 배와 접촉이 많았던 사실이다. 작가는 자신이 이 사실을 접했다는 증거로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선박의 이름과 별명까지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용맹(El Temerario)’이라는 별명의 ‘산타 바르바라호(Santa Bárbara)’와 ‘행복호(El Dichoso)’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어머니가 중국상선(la nao de China)이 오래전에 어머니 고향에 운반해 왔던 중국 상자를 간직하고 있었다(1991, 23)는 사실이다. 따블라다는 이 기억으로 『중국상선』이라는 소설을 썼으나 1914년에 멕시코를 떠날 때 소실되고 말았다. 셋째는 어머니 친구의 영향이다. 필리핀을 빈번하게 왕래했던 중국상선 함대사령관 부인이었던 끈셈시온 하우레기 데 아를레기(Concepción Jáulegui de Arlegui)는 미사를 보러 갈 때 중국 부채를 가지고 다녀 따블라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사실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끈셈시온 하우레기 데 아를레기 부인은 내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달아오르게 한 장본인이다. 그녀는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사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녀가 말했던 장소와 사물들의 이름이 아직도 내 귀에 소라들의 거대한 소음과 함께 웅웅거리며 남아있다(1991, 36).

넷째는 따블라다의 첫 번째 부인의 삼촌인 후스또 시에라(Justo Sierra)의 영향이다. 당시에 철학자 및 정치가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동양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후스또는 주디스 고펜에(Judith Gautier)의 『일본소설 Una novela japonesa』와 공꾸르 형제의 『일본 예술 El arte japonés』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였다(Tanabe 1981, 30). 친척들 모임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자주 만났던 후스또는 따블라다에게 동양에 대한 취향을 전달했을 것이다. 후스또가 번역한 두 서적의 저자는 공교롭게도 따블라다의 스승이 되어 작가의 일본 취향을 안내한다(2007, 22).

따블라다의 동양 취향에 대한 지인이나 친구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로 수집광이다. 먼저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던 따블라다는 학창시절에 새로 부임한 스페인 출신의 파브레스(Fabrés)라는 화가의 작업실을 방문한다. 거기서 그는 작업실을 가득 채운 이슬람 계통 물건을 비롯하여 동양식 양탄자, 부채, 일본 양산 등을 보고 놀란다(1993, 89). 두 번째 사람은 스페인 외교관인 페드로 데 까레레 이 렘베예(Pedro de Carrere y Lembeye)이다. 공꾸르 형제의 영향을 받은 그는 자신의 집을 프랑스와 스페인의 18세기 물건과 극동의 물건으로 장식하였다. 따블라다가 나열하는 수집품 중에는 쿠르드인의 리그와 일본 수채화도 포함되어 있다(1991, 209). 세 번째 친구는 멕시코 예술품을 수집하는 기예르모(Guillermo)라는 멕시코 건축가이다. 그는 여러 채의 집에 예술품들을 보관하며 그 예술품에 대해 전문가처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작가는 회상한다(1991, 205).

따블라다의 동양에 대한 직접적인 인연은 『천일야화』에서 시작된다. 그는 어렸을 때 이 책을 읽는 재미에 빠져 잠도 자지 않았다(1991, 66)고 회고한다. 그리고 따블라다는 자신의 수집 성향이 군인 학교 시절에 곤충채집을 하면서 시작되었다(1991, 100)고 밝힌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동양에 대한 사랑(el amor a los asuntos orientales)’을 가르친 화가 알폰소 랑카스터 존스(Alfonso Lancaster Jones)와의 만남이 결합되어, 작가는 동양 예술품 수집광이 된다.

지금까지 관찰한 사항에 의하면, 따블라다는 집안 요소와 주변 지인들의 영향, 그리고 개인적 성향 등으로 동양 물품을 수집하게 될 수 있다. 동양사상예로의 접근과정 첫걸음으로 간주할 수 있는 동양과 관련된 물품들을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III.1.2. 수집 동양물품

‘오리엔탈리아(Orientalia)’와 ‘브렌타노(Brentano)’라는 두 서점을 중심으로 동양서적을 구입했던 호세 환 따블라다가 수집하고 직접 체험한 동양 관련 사항은 매우 풍부하다. 작가의 동양 취향은 공간적

으로 광범위하여 일본, 중국, 한국 등의 극동과 필리핀, 인도, 심지어 러시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취향을 지녔던 그는 예술 아카데미(Academia de Bellas Artes)의 동양예술 교수로 임명된다(1992, 124).

우선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따블라다는 일본을 다녀온 후에 『태양의 나라에서 *En el país del sol*』라는 서적을 발표하고 *Revista de Revistas*에 일본에 관한 글을 기고하여 일본 황제로부터 훈장을 받는다(1992, 161). 그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당시에 유행했던 공꾸르 형제의 『18세기 일본 예술-오우따마로 *Art Japonaise de XVIIIe Siecle: Outamaro*』(1891)로 시작하여, 『일본인 *The Nihongi*』(1899)과 윌리엄 조 오지 에스턴경(Sir William George Aston)의 『일본문학사 *A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1899)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Tanabe 1981, 10-12). 따블라다는 그 외에도 일본 전문가인 빼에르 로띠, 라프카디오 헨(Lafcadio Hearn) 등이 저술한 서적을 읽고 일본잡지, 그림책 등을 통해 일본에 관한 지식을 늘여나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1992, 295). 그는 멕시코시티의 꼬요아칸(Coyoacán)에 집을 지어 일본식 정원을 조성하고 일본인 하인을 고용하며 동양물품을 수집한다. 또한 서재에는 제단을 차려 향을 피우고 부처 관화와 에드몽 드 공꾸르의 초상화를 모시기까지 한다. 그리고 서재에는 일본과 중국 물품을 전시하고 일본인 사서를 고용하여 <엘 임빠르시알 *El Imparcial*> 신문에 자신의 서재를 소개하여 외부인들의 방문을 받기도 한다(1992, 112). 또한 따블라다는 『일기』에 일본어 문장을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쾌락은 고통의 씨앗”(1992, 44)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1992, 297)는 일본 속담을 삼입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그는 기모노를 잠옷으로 사용하며 일본 도자기와 타일, 양산, 부채, 녹차 등을 구입하고 버섯은 판매까지 하였다. 그리고 따블라다는 일본음식점에서 회를 먹기도 하고 과자와 살구를 먹었음을 회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일본 연극을 구경하고 일본역사를 저술하려고 시도하며 결국에는 일본 하이쿠를 중남미에 소개한다.

작가는 19세기에 들어와 서양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중국을 지식과

예술, 문명에서 최고의 국가(1993, 223)로 극찬한다. 일본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했던 따블라다에게 중국은 역시 커다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에 거주할 때 차이나타운 근처에 근거지를 마련했다(Tanabe 1981, 75)고 한다. 따블라다는 찰머 웨너(Chalmers Werner)의 『중국 신화와 설화Myths and Legends of China』와 바틀러 레이즈(Bartler Raser)의 『중국문제The Problem of China』를 독파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일본인 시게요시 오바타가 쓴 책을 통해 이백을 알게 된다. 또한 그는 중국의 아편전쟁과 전족 관습을 알고 있었고 청나라 장수인 리홍장의 이름도 언급한다. 그 외에 그는 중국 그림과 도자기, 그릇, 양탄자, 그림엽서 등을 수집하기도 했다.

한국에 관한 사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중남미 작가가 소개한 것 중에서는 제법 많이 등장하는 듯하다. 따블라다가 읽은 한국관련 서적으로 아수꼬 타나베는 『히데요시의 한국침략Hideyoshi's Invasion of Korea』을 들고 있다(1981, 10). 한국에 대한 물품은 가마와 병풍, 장롱 정도이다. 따블라다는 한국에 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자(1993, 169)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을 잘 몰랐으며 또한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아까뿔꼬를 통해 교역을 했던 필리핀과 관련된 사항은 독일에서 만든 필리핀 앨범과 필리핀제 트렁크와 모포 등이다. 인도에 대해서는 “유카탄 반도의 한 지역 이름이 드라비다족 유적지의 이름과 유사하다.”(1992, 157)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관련 사항으로 작가는 톨스토이의 『어둠의 힘』과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었고 담배와 순례자 그림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신의 일기에 상세하게 기록한 따블라다는 실제로 이들 물건들을 수집 및 전시하여 동양에 대한 관심을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여주었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많은 무장을 했을 것이다.

### III.2. 정신적 요소

『계시Revelación』라는 제목의 시에서 과문당한 사제가 되고 싶어

하는 따블라다는 정신적 요소의 발로로, 동양사상에 다가가기 전에 멕시코에서 국교로 정해져 있던 가톨릭교에 대한 비판을 먼저 제기한다. 작가는 우선 예수의 모습을 고통스럽고 험박하는 모습으로 그린 후에, 듬성듬성하고 갈색인 머리카락과 수염을 새끼 양의 털처럼 뺨뺨하게 박힌 검은 색으로 변화시킨다(1992, 60). 나아가, 독실한 신자 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했지만 따블라다는 친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의 옥리에 대항한 농부들을 지휘한 공산주의자였다.”(1992, 317)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가톨릭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멕시코는 광적일 정도로 그리스도교 국가이지만, 그리스도교의 근본인 이웃에 대한 사랑은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 가톨릭교 성향이 강한 멕시코에서 이 종교는 잔인하고 살육적이다(1992, 196).

이런 여건에서 따블라다는 동료 중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가 광적인 가톨릭교를 혐오한다(1993, 76)고 말한다. 그러면서 작가는 단일신이 아닌 복수의 신을 인정하며(1992, 318) 서양의 신에 대해 등을 돌리고 이교(異敎)인 동양의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Tanabe 1981, 33). 그러나 당시의 멕시코인들은 일본과 중국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였고, 중국인은 귀가 거꾸로 달렸고 쥐를 먹으며 여자의 발을 자른다(1991, 311)고 믿고 있었다. 이에 대해 따블라다는 일본인은 충실하고 강하며(1992, 93) 중국인은 부지런하고(1993, 230), 두 나라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1993, 144)고 역설하며 멕시코인이 그들을 배워야 한다(1993, 230)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을 밑바탕으로, 작가는 일본의 자연과 중국의 신비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주의자(민용태 1995, 181)인 따블라다는 일본인들은 자연을 보고서 정신적 상상력을 기른다(1992, 193)고 미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따블라다는 “군인학교 시절의 수학선생님은 동양시인처럼 상상력이 뛰어났었다.”(1993, 241)고 묘사한다. 또한 그는 “자연의 산물인 연꽃과 귀뚜라미 소리에 빠져 일본을 느끼기 시작했다.”(Tanabe 1981, 77)고 밝히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는 뉴욕행 배에



서 한 상인을 만나 중국에서의 신비 체험을 듣고 나중에는 동양신비에 관한 로에릭(Roerik)의 그림책을 구입한다(1992, 316). 중국에 대한 찬양과 호기심으로 따블라다는 <엘 임빠르시알>과 <멕시코 시사*Le Courrier du Mexique*>에 가명(Chen-Ta-Fan)으로 중국관련 글을 연재하여 중국인으로부터 방석과 부채, 차도구 등을 선사받기도 한다(1993, 233-234). 이와 같은 동양 정신과 관련된 작가의 예찬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은유되어 나타난다.

동양의 술은 영혼들의 추위를 잘 막아주고, 처녀에게는 정결한 망토가 되며, 아래 눈꺼풀이 패인 죄인에게는 번쩍이는 성의(聖衣)가 된다(1993, 323).

지금까지의 전제 아래에서 작가는 동양의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전개한다. 따블라다가 산발적으로 소개하는 것들은 도교와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불교이다. 따블라다는 노자를 도(道)와 연결시키며 영화를 본 후에 느낀 감정을 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그는 도를 사랑과 슬픔, 그리고 행복감이 넘치는 감정, 황홀경의 시작, 우주적 생명(*la Vida Toda*), 인류애, 자연, 절대적 아름다움과 같은 것으로 정의한다(1992, 318). 유교의 공자는 혼란으로부터 멕시코인들을 구하게 될 인물(1993, 229)로 정의되고, 이슬람교는 하나의 낙원으로 묘사되고 있다. 따블라다는 나이가 든 후에 군인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 가끔 이용했던 커피숍을 마호멧의 낙원으로(1991, 98) 둔갑시킨다. 또한 그는 한 친구의 청빈한 성자 같은 생활을 소개할 때, 아랍지역의 화려한 정원과 천국의 무희들에 둘러싸인 동양의 침실을 사용한다. 힌두교에 관한 내용은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요가와 베단타 철학, 라마야나, 인도여신 등이 나열되고 있다. 인도여신에 대해 따블라다는 창조의 브라흐마인 코끼리(1992, 332)를 제시하며 힌두교의 신인 비쉬누신을 연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작가는 가톨릭교를 부정하면서 일본의 자연과 중국의 신비에 관심을 두고 동양 정신을 예찬하며 도교와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불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사

항들로 이루어 보아, 우리들은 멕시코 작가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동양사상으로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동양사상 중에서 작가가 가장 애착을 보였던 불교를 별도로 살펴보고 그의 정신세계를 조망해 본다.

#### IV. 불교와의 관계

##### IV.1. 불교 교리

일본을 상상할 때 “소나무와 절로 가득한 산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1992, 23)고 말하는 따블라다는 자기 집 벽난로 주변을 장식할 때 중심에 성장한 부처를 모셨다(1993, 168). 그리고 *Revista Moderna*에서 그는 중으로 묘사되었고, 따블라다 자신도 스스로 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1992, 6). 불교에 경도된 그의 마음은 1925년 3월 9일자 편지에 매우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모든 것은 버려야 한다. 예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며, 이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단지 직감과 리듬, 사랑의 전지전능한 기적, 선행의 기적, 부처의 기적, 미륵부처의 기적만 있을 뿐이다(1992, 6).

이처럼 불교 분위기에 싸여 지낸 듯한 따블라다는 동양 종교와 사상 중에서 불교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따블라다의 불교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불교 관련 표현을 살펴보고 불교의 가르침을 분석하기로 한다. 불교 관련 표현은 금붕어와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 모양, 그리고 연꽃으로 나타난다. 작가는 금빛의 햇빛 아래에서 “금붕어는 부처 같은 영원한 평화 속에서 천천히 조용하게 노닐고 나무들의 신성함과 동물들의 순진함은 인간의 비천한 야만스러움과 대비가 된다.”(1992, 83)라는 문장에서 부처의 경지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그는 출렁이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나는 거품을

근 자료 표현하여 불교를 자연 속의 종교처럼 묘사한다. 화려한 꽃 앞에서 신성한 부처가 솟아오르는 지복(至福)의 꽃인 동양 종교의 신비로운 장미인 연꽃(2005, 61)은 장식에 사용된다(1992, 217)고 따블라다는 서술해 놓고 있다.

산문에 나타난 불교의 가르침은 윤회를 비롯하여 범아일체, 살생 금지, 카르마, 열반 등으로 나타난다. 우선 작가는 윤회를 다루기 전에 영혼불멸성을 먼저 경험한다. 1924년 11월 25일 일기에 작가는 꿈속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다른 세상에서 영혼이 생존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불멸성의 행복한 인식을 하게 된다(1992, 253). 이 인식에 대한 확신으로 따블라다는 덴마크 철학자인 비고 카블링(Viggo Cavling)이 『집단 영혼Espíritu Colectivo』에서 연구한 내용인 “우리 모두는 내부에 있는 불멸성의 원리를 감지한다.”(263)는 글을 1926년 1월 3일 일기에 옮겨 적어놓고 있다. 영혼 불멸을 정리한 이후, 작가는 신지학에서 여러 세상들의 연속적 고리(253)라고 규정한 윤회를 라프카디오 현의 글을 이용해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한 순례자가 자갈로 된 높다란 산을 밤새도록 기어 올라간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갈들은 수천 번의 연속적인 윤회를 겪으며 살아왔던 자신의 두개골이었다(1993, 336).

그리고 따블라다는 이 윤회가 신적인 계획에 따라 이기주의로부터 정화되어 자비심이 가득한 상태로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합치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 수양과정을 용광로에 비유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쓸모없는 집기의 쇠붙이처럼 주형에서 제대로 응고하기까지 새롭게 용해되기 위해 용광로에 반복해서 들어가야 한다.”(1993, 37)고 역설한다. 윤회의 한 예로 작가는 넷사우알꼬요틀(Netzahualcóyotl)이 베니또 후아레스(Benito Juárez)와 니그로만떼, 알따미라노(Altamirano) 등으로 환생한 것(144)이라고 주장한다.

범아일체에 관한 구체적인 예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따

블라다는 “내 안에 존재하는 신”(1992, 238)이라는 불교식 표현을 사용한다. 그 외에 작가는 범아일체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듯한 글을 다른 문장으로 제시한다. 하나의 예는 “외형을 지닌 내 존재가 아무도 감지할 수 없는 원자처럼 사라지는 곳에서 ‘우주적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했다.”(1991, 282)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나’를 신적인 것과 연결한다. 그것은 최상의 에고 또는 우주적인 에고는 우리들의 ‘나’ 중에서 최상의 것(1992, 310)이라는 글이다.

살생금지 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다섯 가지 계율중의 하나이다. 살생금지 는 그리스도교에서도 가르치는 하나의 계율이지만 작가는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살생금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가 어느 절을 방문했을 때 한 스님이 뱀을 던지는 것을 보고 놀란다. 이때 그 스님은 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을 놀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노라고 밝힌다. 이 예로 작가는 살생금지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것은 인간이 생명을 주지 않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생명을 멸할 수 있느냐(1991, 273-274)의 내용이다.

“전세(前世)에 지은 선악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현세(現世)에서 받는 응보”(신기철·신용철 1987, 2309)라는 의미의 카르마에 대해서 따블라다는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사후에 업이 사람들 위에 쏟아져 내려 고통스런 미래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1993, 172)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누나가 사망했을 때 업이 다했다(1992, 290)는 표현을 하여 카르마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따블라다는 인연을 무서우리만큼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카르마가 단순하게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멕시코인들의 협조와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1993, 428-429).

“모든 번뇌를 해탈하여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신기철·신용철 1987, 2372)를 열반이라고 한다. 따블라다는 황홀경(éxtasis)이란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열반과 관련된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한다.

이 터널을 통해 아무런 조건도 없고, 시간이나 공간도 없는 최고의 영혼인 신의 황홀경에 복귀하는 것이다(1992, 240).

그 외에 작가는 불교와 관련된 어휘인 ‘프라나’와 ‘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작가는 스님과 유사한 차림으로 지내면서 불교 관련 표현으로 불교의 상징인 卍 과 연꽃을 자신의 일기에 사용하였다. 또한 그는 불교의 교리와 관련하여 윤회와 범아일체, 살생금지, 카르마, 열반 등을 소개하고 있어 불교의 가르침을 상당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IV.2. 불교 수행

1922년 1월 8일 일기에는 따블라다가 『멕시코 세레나데*Serenata Mexicana*』라는 책에 기고했던 불교 수행과 관련된 글이 적혀 있다.

부처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공부했다. 최초의 사제는 부처를 모델로 삼았다. 이후의 사제들은 계속해서 나이든 스승들을 모방하였다. 그리고 당신은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과제는 정열의 열정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는 것이다(1992, 165).

이 글은 수행을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따블라다는 불교 수행과 관련하여 명상이나 좌선과 채식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따블라다는 명상 또는 좌선과 관련된 사항을 생활 속에 나타난 일반인의 얼굴표정, 일반인의 무지, 좌선의 실천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명상의 표정은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한 모습에서 묘사된다. 이 풍경은 한 병원 건물이 붕괴될 때 작가가 바라본 노인들의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 노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광경에 몰입되어, 마치 황홀경 속에서 정지된 듯, 붕괴되는 그 건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다(1993, 136).

그러나 따블라다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 그 예는 “명상하고 있는 사람을 자는 줄 알고 뒤꿈치를 들고 살짝 다가와 얼굴에 수염을 그린다.”(1993, 192)는 것이다. 그렇지만 따블라다는 당시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좌선을 직접 실천하여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미겔 꼬바루비아스(Miguel Covarrubias)가 그린 그림으로, 따블라다가 부처의 모습으로 좌선을 실행하고 있다(1992, 224-225).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로 로돌포 마파는 따블라다가 요가를 실천했다고 지적한다(2007, 34).

『일기』에서 따블라다는 자신이 신지학을 접하고 나서 육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채식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신지학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의 실천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일기』에서 작가는 채소로만 차려진 저녁식사를 해도 만족스럽다고 서술해놓고 있다(1992, 257). 그 외에 발견되는 불교식 수행은 산스크리트어 ‘옴(OM)’ 및 화장과 연결된 것이다. ‘옴’은 스님들이 소리로 수행할 때 내는 음으로 우주의 생성 및 파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옴’의 의미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이 음의 적절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살핀다(1992, 197)는 말만 적고 있다.

시체를 불에 사르는 불교의 화장과 관련된 사실은 아드리아나 산도발(Adriana Sandoval)이 밝힌 바와 같이, 『일기』 중에서 일부가 삭제되어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따블라다의 부인인 니나(Nina Cabrera Douval)가 원고를 출판사 측에 넘겼을 때 『일기』의 일부가 훼손된 이유는 말년에 따블라다가 공책의 일부를 찢었다는 것이다. 그는 감정에 좌우되는 세속적인 일에서 벗어나 조용한 생활을 위해 공책을 낱장으로 찢어 그것을 불태웠던 것(1992, 6)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두고 판단해 본다면, 따블라다는 불교 교리 공부보다 선 수행에 더 힘을 쏟았음에 틀림없다.

## V. 동양사상 접근의 한계

동양의 예술품과 사상을 탐닉했던 따블라다는 멕시코인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한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동양 예술품과 사상에 대한 작가의 태도 및 인식을 엿보고자 한다. 우선 작가가 가장 침잠했던 일본 편향 기호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중단된다. 기예르모 세리단(Guillermo Sheridan)은 따블라다가 1921년에 뉴욕에 정착하여 1937년에 멕시코의 쿠에르나바카(Cuernavaca)에 거주하기까지 일본예술에 나타난 동물들을 비롯한 여러 전시회를 개최했으나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그의 일본취향은 중단되었다(1992, 327)고 한다. 이 사실은 따블라다의 동양취향이 필사적이지 않고 피상적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작가는 1914년에 베누스파시오 까란사(Venustacio Carranza) 대통령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아바나로 피신을 한다. 5년 후에 자기가 살던 꼬요아칸의 일본식 집을 방문하지만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또한 그는 정원에 손수 심었던 버드나무가 고사했음을 발견하고 아쉬움을 드러낸다(1993, 162). 이와 같은 예들은 한 개인이 취미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sup>3)</sup>

종교 및 사상과 관련된 사항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동양사상에 대한 지식에서 주로 발견할 수가 있다. 작가는 동양의 정신에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지니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멕시코인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은 듯하다. 왜냐하면 작가는 예수에 대한 관심으로 세세(Seché)의 『예수의 기적 이야기 *Merveilleuse Histoire de Jesús*』를 구입했으며(1992, 283) 그리스도의 왕립에 대한 연대기를 썼고(257), 친구들과 그리스도의 수의에 관해 토론하기(317)도 하며, 하느님에게 자신을 맡기기(254) 때문이다. 그 외에도 따블라다는 문장 중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1992, 257, 295; 1991, 290). 또한 작가는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동일하게 간

3) José Juan Tablada(2007), 23쪽에는 당시에 따블라다가 수집한 동양 관련 물건들의 일부가 호세 바스콘셀로스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적혀있다.

주하기도 한다. 한 예는 동물에 대한 불교의 자비를 아시스(Asís) 성인이 그리스도교에 행한 최상의 선물과 동격으로 보는 것이다(1993, 85). 그 외에 따블라다는 1945년 8월 2일 미국의 산타 클라라(Santa Clara) 병원에서 프란시스코회 사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했다(2007, 34).

불교와 관련된 사항에서도 약간의 한계가 발견된다. 산문을 통해서 보면 작가는 아마도 네르보 및 호세 바스콘셀로스와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아마도 네르보는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제법 있어 『충만 Plenitud』이라는 작품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응용하여 불교와 관련된 시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인도연구』에서 인도 역사와 사상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불교와 정신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두고 볼 때, 따블라다는 두 사람에 비해 불교에 관한 지식기반은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4)</sup>

끝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계점은 따블라다의 멕시코 고대문명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다. 멕시코 고대 유물을 수집하고 1927년에 『멕시코 예술사 Historia del arte en México』를 발간한 따블라다는 동양사상 접근의 목적이 멕시코 고대문화의 복원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당시의 멕시코 사회분위기가 원주민에서 멕시코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 예를 본다면, 당시에 유행했던 신지학은 중남미의 근원을 원주민에게서 찾았고(Deves 1999, 141), 따블라다와 친분이 두터웠던 바스콘셀로라도 멕시코적인 것을 원주민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Sandoval 1992, 158).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원주민인 따블라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면에서 동양을 이용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을 꼬요아칸이나 아츠포살코(Atzacapotzalco)처럼 멀고 신비롭게 소개한다(1991, 314). 둘째는 일본어 ‘상(さん)’을 나우아틀어의 ‘쩨

4) 민용태(2000), 『라틴아메리카 문학탐색』, p. 22. 민용태 교수는 따블라다의 불교가 ‘체념’이나 ‘욕망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아마도 네르보적 이해를 넘어선 불교의 체형적 미학, 즉 ‘선미’의 경지에까지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tzin)'과 동일하게 간주한다(1993, 144). 셋째는 윤희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니또 후아레스와 니그로만떼를 특별한 인디오로 보면서 이들을 넷사우알꼬요뜰이 환생한 것으로 해석한다(144). 이런 예들을 기초하여 본다면, 따블라다는 동양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의 혼을 발견하려 했음에 틀림없다. 이에 대한 증거는 따블라다가 자신의 정신적 뿌리는 멕시코 대지(442)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엑포르 라미레스 고메스는 “따블라다가 동양에 심취한 이유는 멕시코 뿌리를 더 잘 관찰하기 위함이었다.”(2004, 146)라고 지적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VI. 결론

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한 작가가 쓴 일기 및 기사를 중심으로 그 작가의 정신적 취향을 연구하는 것은 전기적이고 피상적일 수가 있다는 취약점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작가의 독백을 연구함으로써 작가의 정신적 바탕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성과일 수가 있다.

이러한 연구 상의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멕시코 시인으로 최초의 일본 방문자였던 호세 환 따블라다의 산문에 나타난 작가의 동양사상 접근과정을 살펴보며 작가가 동양사상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작가의 동양사상 접근동인은 외부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외부적 요인인 사회배경에서 작가는 독립 당시의 중남미가 안고 있었던 암담한 미래에서 출발하여 뽀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시절의 과학 중심 정책으로 인한 정신적 폐단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멕시코 아테네’의 인도 탐구에 찬동하며 급기야는 동양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을 언급한다. 개인적 요인에서 작가는 자신의 정신 지향적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동양지향적인 신지학과 연결시켜 동양사상을 향한 자신의 동기를 정당화한다.

동양사상으로서의 접근과정으로 작가는 동양 예술과 동양사상 및 종교에 국한하여 동양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이야기한다. 동양 예술에서 작가는 자신의 수집광 버릇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 한국, 필리핀, 러시아 등의 물건들을 수집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사상 및 종교 면에서는 가톨릭교를 부정하며 그 대체 종교로 도교와 유교,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를 내세운다. 불교에 관한 사항에서 따블라다는 윤회설과 범어일체, 카르마 등과 관련된 교리와, 좌선 및 채식주의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동양사상으로서의 접근 취향은 예술품 수집의 덧없음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미련, 또한 동양 종교에 대한 짧은 지식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작가는 동양 사상 접근과정의 이유를 고대 멕시코문화에 기초한 멕시코의 복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듯 동양과 아스떼까 요소를 대비시킨다.

결국 우리는 호세 환 따블라다의 동양사상 접근의 출발점과 귀결점이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었던 멕시코사회에서 원주민 문화를 복원하고자 했던 염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Abstract

José Juan Tablada no sólo era un japonista sino también un orientalista. En su *Diario*, *La feria de la vida* y *Las sombras largas* que el autor mexicano quería escribir con el título de *Memorias*, podemos encontrar suficientemente los elementos orientalistas. En este artículo vamos a observar los rasgos orientalistas en las prosas de José Juan Tablada para investigar su propósito de acercarse al pensamiento oriental.

Para llegar esta meta hemos dividido en dos partes: los motivos y los factores sobre el pensamiento oriental. Primero, observamos los motivos sociales y individuales del prosista. Como motivos sociales, Juan Tablada indica dos problemas: el futuro oscuro de La América Latina

y el caos mental en la etapa de Porfirio Díaz. Y luego sugiere el Oriente como una manera de resolución. En motivo personal, el autor muestra su inclinación hacia el espíritu y relaciona su accionamiento con la teosofía para justificar su idea.

El mexicano introduce, como factores orientales, los artes y los pensamientos o religión. José coleccionó muchas cosas, por ejemplo, muebles, biombos, vasos, pinturas de los países orientales. Y además, él revela que ha leído muchos libros sobre las religiones orientales, entre las cuales ha estudiado más el Budismo. Pero hay algunos límites en su Orientalismo: la invalidación de las artes por la pérdida, la afeción al Católicismo y el conocimiento corto sobre las religiones orientales. Con base de estos elementos, José Juan Tablada sobrepone los recuerdos antiguos de su país para acentuar la recuperación de su cultura auténtica.

Key Words: José Juan Tablada, Pensamiento oriental, Orientalismo, Prosa, Literatura mexicana / 호세 환 따블라다, 동양사상, 동양취향, 산문, 멕시코문학

논문투고일자: 2009. 06. 29

심사완료일자: 2009. 07. 22

게재확정일자: 2009. 07. 31

## 참고문헌

- 강태진(2002), 『호세 바스콘셀로스의 불교이해』, 동서정신과학, Vol. 5, No. 1, pp. 23-40.
- 민용태(1995), 『로르카에서 네루다까지』, 창작과 비평사.
- \_\_\_\_\_ (2000), 『라틴아메리카 문학탐색』, 문학아카데미.
- 신기철·신용철(1987),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Boero Vargas, Mario(1983), “Religión y sociedad en Iberoamerica,” *Cuadernos Hispanoamericanos*, No. 395, pp. 257-289.
- Deves Valdés, Eduardo(1999), “Redes teosóficas y pensadores(políticos) latinoamericanos 1910-1930,” *Cuadernos Americanos*, Vol. 6, No. 78, pp. 137-152.
- Esther Maciel, María(2002), “América Latina en diálogo con Oriente. Conversación con Haroldo de Campos,” *Cuadernos Hispanoamericanos*, No. 628, pp. 83-94.
- Guevara Meza, Carlos(2000), “Culturas reveldes: democracia y cultura anarquista de principios del siglo XX,” *Cuadernos Americanos*, Vol. 7, No. 82, pp. 217-241.
- Ramírez Gómez, Hector(2004), “Influencia de Oriente en la poesía de José Juan Tablada,” *Poligramas*, No. 21, pp. 145-153.
- Ramírez, Ignacio(1994), *Ensayos*, México: UNAM.
- Sandoval, Adriana(2009), “José Juan Tablada y el arte,” [http://cvc.cervantes.es/obref/aih/pdf/ll/aih\\_11\\_4\\_020.pdf](http://cvc.cervantes.es/obref/aih/pdf/ll/aih_11_4_020.pdf), 2009년 6월 5일 검색.
- Tablada, José Juan(1991), *La feria de la vida*, México: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 \_\_\_\_\_ (1992), *Obras-IV Diario(1900-1944)*, México: UNAM.
- \_\_\_\_\_ (1993), *Las sombras largas*, México: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 \_\_\_\_\_ (2005), *En el país del sol: crónicas japonesas de José Juan Tablada*, Prólogo, edición, y notas de Rodolfo Mata, México:

UNAM.

\_\_\_\_\_ (2007), *De Coyoacán a la Quinta Avenida*, Selección, edición y estudio preliminar de Rodolfo Mata, México: FCE.

\_\_\_\_\_ (2008), *Los Imprescindibles, José Juan Tablada*, Selección y prólogo de Antonio Saborit, México: Ediciones Cal y Arena.

Tanabe, Atsuko(1981), *El japonismo de José Juan Tablada*, México: UNAM.

Tinajero, Araceli(2009), “Viajeros modernistas en Asia,” 2009년 6월 5일

검색, <http://www.lehman.cuny.edu/ciberletras/v04/Tinajero.html>,

<http://www.tablada.unam.mx/poesia/ensayo/haijine.html>

*Nueva Enciclopedia Larousse* 9(1984), Barcelona-Madrid: Editorial Planeta.